예지

[도식화]

* 도식화 제작 시 입출력 과정 및 어떤 서비스 인지가 한 눈에 보여야함( 부가적인 설명 없이)
* 입출력 프로세스 표현 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 될 건지가 한 눈에 보여야함.
* USECASE 예시 참고해서 테이블 형식처럼 A, B, C를 따로 표현(시나리오처럼)
* 시나리오형식 + 입출력 도식화 둘 다 필요할 듯

[고려 사항]

* DB와 파일의 차이점. 파일이 아니라 왜 DB를 사용하는 지

[발표]

* 동기, 선정 이유, 어떻게 제작할건지, 뭘 이용해서 만들건지, 기대효과/목표
* 기술적인 면, 현 트랜드 반영 등 우리만의 장점을 드러내면 더 좋음. 예시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전한다던지 우리가 할 프로젝트가 현 트랜드에 맞는 기술이라던지 등등.

→ “우울”, “코로나블루”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겹침. 특히 무디어리팀이랑 아예 동기와 목표가 같은 상황. 홈 프레그런스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던가 2021 ICT 10대 이슈에 “홈코노미”가 있으니 이 점 살려도 좋을 듯함.

→ 입출력을 보여주는 도식화와 제품 사용 시나리오 두 가지 모두 제작.

민진

[발표]

1. 시스템 구조도/ 응용서비스 구조도 > 구글에 검색해서 어떤 식으로 그려야할지
2. 왜 이 작품을 만들어야 해 / 어떻게 만들거고 / 어떤 것들을 이용할거고 / 그 결과는 이렇게 예상, 어떤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의 구조로 발표할 것
3. 작품성/ 작품 구성 시 힘든 부분/ 경제적인 부분/ 트랜드와의 연관성을 다룰 것

[2차보고서에서]

1. 날씨와 감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지 \*\*\*
2. 도식화

> a/b-1/b-2/c 가 아닌 use case 1,2,3,4 로 갈 것 ,

> 구글에 use case검색하면 나오는 표로 설명해도 괜찮음

> ‘사용자 입력’에서 ‘사용자가 집에 있는 지의 여부’ 중간에 논지 잇기

1. 감정의 판단 근거 \*\*\*

[의견]

1. 도식화에서 use case 예시처럼 표로 경우를 나누고 그 안에 도형으로 표현해도 좋을 듯

[소현]

1. ‘개념 및 설계 기능’ -> Google에서 ‘응용서비스 구조도’ or ‘시스템 구조도’ 이미지 참고하여 다시 작성 -> 모든 사람이 한 눈에 기능 및 무슨 프로그램?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.

-> Uses case description / Block diagram

1. <https://scholar.google.com/> <https://developers.google.com/> 두 개 사이트 참고하여 작성.
2. Dataset 직접 만들지 않고 논문 등 에서 찾아서 데이터셋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음.
3. A 먼저 다 만들고 난 뒤, B-1, B-2 구현하기.

* 기술적인 면, 현 트랜드 반영 등 우리만의 장점을 드러내면 더 좋음. 예시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전한다던지 우리가 할 프로젝트가 현 트랜드에 맞는 기술이라던지 등등.
* 작품 구성 시 힘든 부분/ 경제적인 부분/ 트랜드와의 연관성을 다룰 것

동기 /선정이유 ->작품 소개(기능적)->작품 기술적 소개(어떻게, 뭘 이용해서,a만)) -> 목표(어떤 기술을 제공, 결과 이렇게 예상) /작품성-> 기대효과/우리만의 장점 보여줄만한 것(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전한다던지 우리가 할 프로젝트가 현 트랜드에 맞는 기술이라던지 등등.) -> 앞서 말한 것들 구현하기에 앞서 a부터 시작하겠다.